

Special & Report

기획특집

쿠바의 지정학적 가치와 한국의 실리

김기현

1. 카리브의 작은 나라 쿠바

미국과 쿠바가 관계 개선을 시작한 이후 세계가 다시 쿠바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마지막 남은 미수교국 쿠바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쿠바는 사실 인구 1,100만 명, 년 GDP 규모 1,2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카리브 해의 작은 나라이다. 인구 규모로 보나, GDP규모로 보나 라틴아메리카 33개국 중 10번째 정도 규모의 나라에 불과하다. 라틴아메리카의 3대국(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은 물론이고, 4중견국(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에도 속하지 못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바와 유사한 규모의 나라로는 에콰도르나 과테말라 정도가 있다. 일인당 GDP도 PPP기준으로 10,0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라틴아메리카 기준에서도 빈국에 속한다. 그러나 쿠바의 존재감은 그런 외형적인 국가 규모에 비해 훨씬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쿠바의 특별함은 무엇이며, 세계는 왜 쿠바에 주목하는가?

2. 혁명의 나라, 쿠바



바라데로. 연 1백만 명의 외국이 찾는 관광휴양지 (출처: <http://travelwednesday.com>)

사람들이 쿠바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쿠바혁명 때문이다.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 쿠바에서 1959년 발생한 혁명은 라틴아메리카 나아가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미국에서 불과 17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따라서 전략적으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인 쿠바에서 반미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다는 사실은 당시 세계를 놀라게 했다.

1) 혁명의 업적

혁명의 사회적 성과도 놀라웠다. 혁명 후 1980년대까지 쿠바는 교육과 보건 분야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가 되었다. 1988년 쿠바의 기대수명은 74세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았다. 비슷한 일인당 국민소득의 브라질은 65세였다.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15명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낮았다. 브라질은 쿠바의 4배인 63명이었다. 문자해독률도 96%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았다. 브라질은 76%에 불과했다. 그로 인해 쿠바는 1980년대까지 라틴아메리카 진보세력의 이상 국가로 간주되었다. 나아가 쿠바는 세계적으로 제3세계 운동(비동맹 운동)의 리더가 되었다.

2) 대표적 친환경 유기농업 국가, 의료 모범국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쿠바의 카스트로 체제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련과 동구권의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쿠바는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일부에서는 쿠바를 ‘친환경 유기농업 성공 국가’이자 ‘의료 모범국’으로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그들은 200만 인구의 쿠바 수도 아바나가 유기 농업으로 재배된 채소로 자급자족하는 대표적 생태도시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쿠바의 친환경적 발전 모델이 ‘인류 미래의 희망’이라고까지 말한다. 또한 의료 부문에서도 쿠바는 여전히 암을 비롯해 모든 질병 치료가 무료인 ‘세계적 의료 모범국’이며, 세계 오지에 국경 없는 의사단을 적극적으로 파견하고, 의료서비스를 수출하는 ‘의료 천국’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 체제의 쿠바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존재한다.

3) 체 게바라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피델 카스트로를 도와 쿠바 혁명을 완수한 체 게바라의 존재도 세계인의 관심을 쿠바로 끌어들이는 이유이다. 혁명 후 권력의 달콤함을 멀리한 체 혁명 확산을 위해 앙골라, 볼리비아 등에서 제3세계 민족해방 투쟁을 전개하다 결국 체포되어 사망한 영웅적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체 게바라에 대한 관심은 바로 쿠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3. 쿠바의 지정학적 가치

1) 지리적 위치: 미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나라

쿠바는 식민지 시대 초기 스페인의 신대륙 발견과 정복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다. 식민지 시기 동안에도 쿠바는 식민지와 스페인 간 무역에서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쿠바만은 마지막까지 식민지로 유지하고자 했다.

스페인을 대신해 쿠바를 지배한 미국에게도 쿠바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였다. 미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미국은 쿠바를 ‘북미대륙의 자연적 부속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독립 이후에도 카리브 지역의 섬은 대부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메리카로 진출하고자 하는 유럽과 미국의 팽창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었다. 따라서 쿠바는 예전부터 미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나라였다.

뿐만 아니라 파나마 운하 개통 이후 쿠바는 미국 동부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 서부로 가는 선박의 항로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미국은 1989년 쿠바 독립 이후 쿠바에서 군정을 실시했고, 1903년에는 판타나모 항을 영구 조차하여 그곳에 석탄저장소와 해군기지를 설치하였다. 이렇듯 쿠바는 지리적으로 미국의 이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나라이다.

2) 쿠바는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의 상징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나라 쿠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을 달성한 나라가 되었다. 기존에도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에서 그러한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따라서 쿠바는 혁명 후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반미주의)의 상징이자 라틴아메리카의 자존심이 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라틴아메리카에 좌파 정부가 부상하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주도로 반미주의가 재등장하면서 쿠바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부각되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2010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공동체(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ños: CELAC)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미주기구(OAS)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도 약화되었다. CELAC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통합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미국과 상호존중의 관계를 원했다. 또 미국의 대쿠바정책을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주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으로 삼았다. 따라서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쿠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쿠바의 문화적 영향력

카리브 해의 조그만 섬나라 쿠바가 라틴아메리카 나아가 세계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이다. 특히 음악에서 쿠바의 존재는 매우 두드러진다. 19세기 쿠바 음악 아바네라(Habanera)는 유럽에서 가장 선호하는 음악이었다. 아바네라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도 삽입되었고, 이탈리아 칸소네를 대표하는 곡 「오 솔레 미오」도 아바네라 리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맘보와 차차차는 1940년대 세계 댄스 음악을 주도했다. 룬바에는 미국의 재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프리카계의 영혼이 살아있다. 손은 살사의 기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손 음악이 주가 된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의 영화와 음반은 세계적 인기를 누렸다.

영화 부문에서 쿠바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라틴아메리카 영화를 주도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영화는 할리우드의 상업영화, 유럽의 예술영화에 이어 ‘제3영화’로 불린다. 영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한, 브라질의 시네마 노보 운동도 결국 쿠바혁명의 산물이다.

문학에서도 19세기 호세 마르티(José Martí)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더니즘 시를 선도했으며, 20세기에 알레호 카르펜티에로(Alejo Carpentier)는 중남미 붐 소설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이다. 이렇듯 라틴아메리카 문화 부문에서 쿠바의 존재감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대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이다.

4) 정치적, 사상적 영향력: 호세 마르티의 라틴아메리카주의와 종속이론

쿠바 독립 운동가로서 쿠바 혁명의 사상적 원천을 제공한 호세 마르티는 비단 쿠바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반미주의) 사상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는 링컨의 미국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했지만, 쿠바를 병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개인적 이득을 위해 국가 주권을 포기하려는 친미 매국노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지역 전체의 통합을 강조했다. 이러한 마르티의 사상은 민족주의 성격의 라틴아메리카주의(Latinoamericanismo) 뿌리가 되었다.



호세 마르티 (출처: <http://www.guerrillero.cu>)

한편, 사탕수수 생산이 경제의 주축이던 농업국가 쿠바에서 발생한 공산주의 혁명은 단계적 혁명론을 주장하는 정통 좌파를 대신하여 즉각적인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혁명 좌파를 탄생시켰다. 혁명 좌파의 사상적 기반은 종속이론이었다. 종속이론은 쿠바혁명을 설명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는 반(半)봉건 반(半)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식민지시대부터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포함된 자본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쿠바도 이미 자본주의 사회로 간주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자본주의는 서구자본주의와 달리 저개발 종속자본주의로서 모순의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 발전을 통해 혁명의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즉각적인 반(反)제국주의 반(反)자본주의 혁명을 실현하는 것이다. 쿠바혁명을 배경으로 탄생한 종속이론은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완전히 다른 측면이기는 하지만 미국정치에서도 쿠바계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미국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플로리다 주 선거에서 쿠바계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플로리다 주 유권자의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쿠바계가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게다가 현재 쿠바계는 미국 상원의원 세 명, 하원의원 세 명을 배출하고

있다. 상원의원 세 명 중 공화당 소속의 두 명은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하다.

5) 경제적 잠재력

쿠바 경제가 비록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잠재력은 결코 적지 않다. 우선 니켈, 코발트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사탕수수, 담배, 커피 등 농산물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쿠바 사탕수수로 만든 럼주와 쿠바산 시거는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다. 쿠바 산 커피(크리스탈 마운틴)는 고급브랜드로 팔리고 있다. 셋째, 기후, 해변, 문화, 사람, 미국과의 거리 등 쿠바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되면 쿠바는 관광산업만으로도 경제를 완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쿠바는 문맹률 1% 수준의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의료, 바이오 부문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쿠바가 벌어들이는 외화의 가장 큰 소득원도 의료서비스의 수출이다. 마지막으로 쿠바는 북미와 남미, 유럽과 라틴아메리카를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조건을 활용한 물류기지로서 발전 가능성도 크다.

이런 모든 조건은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만 해제되면 쿠바 경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아마도 라틴아메리카 4중견국 정도의 GDP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4. 한국의 실리

1) 수교국 확장

쿠바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세 개 미수교국(쿠바, 마케도니아, 시리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쿠바와 수교하는 것은 수교국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쿠바가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북관계에서도 쿠바와의 수교가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그러나 현재 카스트로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와 수

교를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쿠바 내에서 한국과의 수교에 대한 여론은 나쁘지 않다. 쿠바데바떼(www.cubadebate.cu)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개된 한국과의 수교에 대한 쿠바인의 논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쿠바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한국이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첨단 기술 국가이며, 세계 최고의 교육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평가한다. 최근 쿠바에도 상연된 한국 드라마 「내조의 여왕」과 K-Pop의 영향도 긍정적 이미지에 기여했다.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및 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사람들은 쿠바에서 한국 상품을 판매하기를 원하며, 나아가 한국 기업이 쿠바에 직접 투자하기를 희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고려해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반미주의라는 점에서 북한은 쿠바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쿠바가 어려울 때 무기 등을 지원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쿠바가 과거 두 개의 독일과 모두 관계를 가졌듯이, 또 중국이 남한과 북한 둘 모두와 수교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하듯이 쿠바도 북한과 남한 모두와 수교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음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지금 바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를 넘어 자본주의 물결이 밀려들어오면서 쿠바의 주권과 민족적 존엄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쿠바가 과감한 개혁정책을 통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는 데는 쿠바정부의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적 실리

한국과 쿠바의 교역 규모는 2014년 수출 5,581만 달러, 수입 1,217만 달러로 총 6,798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0.1%에 불과한 작은 규모이다. 또한 양국 간의 교역량은 2012년 7,637만 달러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타이어,

디젤 엔진 및 발전기 관련 제품,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에어컨 등이고, 수입 품목으로는 아연광 및 정광, 알루미늄, 시가 등이 있다.

우리의 대쿠바투자는 지금까지 전혀 없으며, 단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아바나 무역관이 2005년에 개설되었을 뿐이다. 쿠바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014년 신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고, 마리엘 경제특구를 지정하였으나 기대만큼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인기업의 제조업 투자 신청이 수백 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쿠바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쿠바의 일반인은 투자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정부 개혁의 미진함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혁명지도자들은 여전히 민간 기업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따라서 과도한 개혁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급관리들 또한 잘못 일을 추진했다가 부패혐의 등으로 숙청될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선불리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경제는 분명 잠재력이 있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기 때문에 시장 개척 가능성은 풍부하다. 특히 자동차 및 중고자동차, 호텔용 가전, 전력난 타개를 위한 발전기 및 부품, 농산물 생산 향상을 위한 비료, 장신구나 화장품 등 여성 소비재 등의 수출이 기대된다.

쿠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의료 및 바이오산업, 인프라 건설, 석유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관광 산업 관련 분야 등에서는 투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라울 카스트로가 퇴진하고 나면, 후계자는 혁명적 카리스마가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삶의 수준 향상을 기대하는 쿠바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경제개혁을 가속화 하지 않을 수 없다. 쿠바가 완전히 개방된 후에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을 수 있다. 우리는 시장 선점 차원에서 지금부터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김기현 —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